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인술을 베풁니다”

서울치대 송정의료봉사회

글 / 안정미 기자

서울치대, 서울의대, 이화약대가 모인 송정의료봉사회가 1972년 발기한 후 25년을 맞았다.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송정의료봉사회 약동(?)들은 지난 8월 선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해외에서 의료봉사를 했다. 선배의 만류속에서도 당차게 해외진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은 수고했다는 동료와 후배, 선배의 격려속에서 다시 한번 의료봉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그들의 열정과 패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송정의료봉사회를 만나봤다.



중국어번역 의료봉사를 다녀온 송정의료봉사회 학생 및 선배

‘나는 장기진료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중국으로라니...’(치과1학년 이선윤),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서울을 등지고 간다. 그래 이렇게 떠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치과2학년 이세영), ‘혹시 내가 6년의 학교 생활을 거치는 동안, 또는 의사면허를 따는 그 순간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레 걱정을 해본다.’(치과2학년 이효진)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잡념이 생겨났지만 새로운 세계와 경험에 대한 막연한 설렘으로 그렇게 송정의료봉사회는 중국 연변을 향해 떠났다.

중국 연변은 마치 30여년전의 우리나라 같아

송 정의료봉사회는 처녀 해외의료봉사로서 중국 연변을 다녀왔다. 모두 29명이 참가했고 서울치대의 경우 진료를 하는 4일 동안 하루평균 70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했다. 그들이 간 곳은 중국 연변 중에서도 조선사람의 비율이 높은 석문진인데 연길시에서 버스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1~2시간 달리면 되는 곳이다. 수도꼭지가 있는 집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 마치 30년전의 우리나라 외진 농촌마을을 연상케 한다.

연변에 사는 조선족이나 중국인의 구강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 편이다. 연변대학 사범대학에 재학중인 소위 엘리트라는 대학생은 앞니가 모두 썩었는데도 병원이 멀리 있어 치료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만만치 않다며 병원가기를 꺼린다. 한 20대 여자도 앞니가 썩은 채로 살아가고 있으며 40대임에도 치아가 반도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을 많이 봤다. 중국이 개방을 한 후 거의 자본주의화되고 있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중국에도 우리나라에서 의원을 개원하는 식의 개체진료소라는 곳이 있는데 대도시가 아닌 현에 있는 개체진료소의 경우에는 장비가 열악하다. 송정의료봉사의 간이장비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중국연변의 의료수준을 이해

하게 해준다.

송정의료봉사회는 우리나라 보건소나 보건지소 수준인 석문진 위생원에서 진료를 했다. 석문진 위생원의 수준은 구조적으로는 커보일지 모르지만 안의 시설은 형편없다. 환자가 오면 약을 주지만 약도 제대로 없고 의료기구 및 장비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장소만 있는 셈이다.

숙식 및 화장실이 불편했지만 커다란 보람 느껴

여 자의 경우에는 방이 딸린 식당같은 곳에서 잠을 잤고, 남자는 잘 곳이 없어서 석문진 위생원에 근무하는 사람의 집을 빌려 잤는데 완전히 집을 빌려준 것도 아니어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잤다.

환자진료나 숙식의 경우는 각오를 한 것이기에 어려워도 참을 수 있었지만 화장실의 경우 참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한다. 화장실이 오픈돼 있고, 남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에는 여러명이 함께 사용해야 했다. 샤워를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도꼭지도 한 개 가지고 여러명이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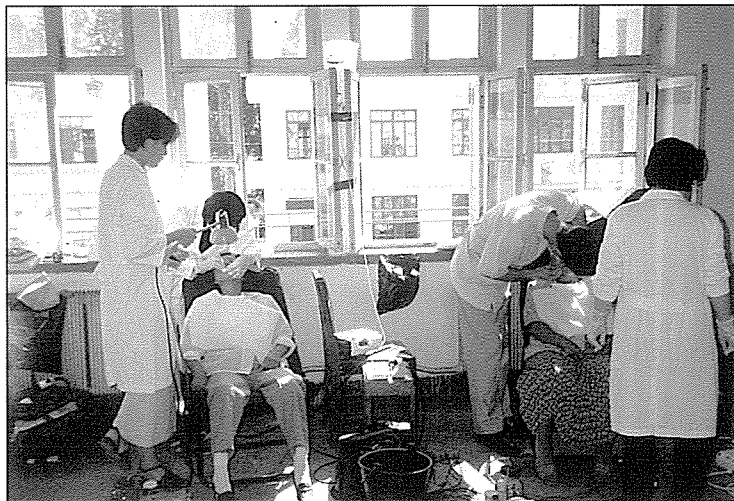
하루는 백두산을 갔는데 유료화장실이 있어 안심하고 들어갔더니만 아뿔싸! 5명이 같이 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화장실에 휴지도 없다고 하니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북한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견해도 달라 한국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면이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체제가 불안한 것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굶는 것에 대해 불쌍하다고 말해 심정적으로는 북한과 더 가까운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힘든 면도 많았지만 조선족 사람들이 송정의료봉사회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고 친절하게 대해주어 많은 보람을 느꼈다.

치과의 경우에는 4일이라는 진료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석문진 위생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보철은 배제해야 하는데 밤을 새워가며 몇명의 환자에게 보철을 해주었다고 한다.

조선족 사람들은 말이 통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중국인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말은 알아듣기 어려웠다. 하지만 진료를 받고난 후 푹푹 떨어지는 눈물로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생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길이 미치는 힘은 매우 컸으리라.

중국 봉사는 동아리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어

송 정의료봉사회 선배인 장기택 서울치대 소아치과학교실 강사는 다음과 같이 동아리 운영에 어려움을 표했다.

“사실 동아리가 더 커지느냐 없어나 하는 기로에 있어요. 국내의료봉사가 대규모의 종합병원 주치의 의료봉사가 아닐 경우에는 인기가 없어졌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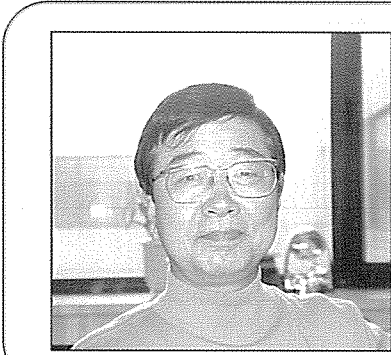
순수와 열정을 대변하는 대학생 위주의 의료봉사회가 지리멸렬의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현대의료기관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병원을 찾기 쉬워졌고,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학병원 등의 이름 있는 의료진을 선호하는 환자의 경향에 따라 대학생으로 구성된 송정의료봉사회와 같은 순수의료봉사회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 빠

져 있는 차에 외국으로 의료봉사를 떠나는 것이 송정의료봉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다. 중국에 다녀온 후로 아직도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고, 훗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북한동포를 위해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치대 본과3학년인 심수연 제50회기 회장은 동아리에 좀 더 많은 사람이 관심가져주기를 바란다며 서울과 지방에서만 진료봉사를 하다가 중국에서 의료봉사를 한 것이 커다란 경험이 됐다고 한다. 자신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젊고 순수한 그들의 모습이 진정한 젊은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한수부
서울치대 치주과학교실 교수, 송정의료봉사회 지도교수

“졸업생들이 학생 때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않고 의사가 돼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봉사활동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해서 안 되며 순수한 감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방진 생각보다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의료봉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택
서울치대 소아치과학교실 강사, 송정의료봉사회 선배

“중국에 봉사를 다녀온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지금 동아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동포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 봉사회가 또 한번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수연
서울치대 본과3학년, 송정의료봉사회 제50회기 회장

“의료를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활동들이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었을 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